



#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게재논문(1995-2008년)의 연구동향 분석

최명애<sup>1)</sup> · 정재심<sup>2)</sup> · 임경춘<sup>3)</sup> · 김주현<sup>4)</sup> · 김금순<sup>5)</sup> · 권정순<sup>6)</sup> · 김성재<sup>7)</sup>  
김경희<sup>8)</sup> · 곽찬영<sup>9)</sup> · 박광옥<sup>10)</sup> · 이경은<sup>11)</sup> · 김을순<sup>12)</sup> · 이경숙<sup>13)</sup>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이후 간호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학문으로서의 간호는 실무에 위한 간호 고유 지식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Hay, Maldonado, Weingarten, & Ellrodt, 1997). 미국에서는 1952년 ‘Nursing Research’라는 간호학술지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다수의 간호학술지가 생겨났으며, 국내에서도 1970년 대한간호학회지를 시작으로 간호분야의 다양한 학회지가 발간되었고 그 중 임상현장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다루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가 1995년에 창간되었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료 정보의 획득과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경험 많은 선배 간호사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와 교과서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은 최신의 변화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못하므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에서 간호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정보가 유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자신의 실무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근거 있는 정보를 찾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간호 실무를 변화 발전시키려면 실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기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에 근거 기반 실무(evidence based practice)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근거 기반이라는 용어는 초창기 주로 근거 기반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이란 용어로 의학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근거 기반 간호, 근거 기반 실무 혹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근거 기반 보건의료(evidence based health care)라는 용어로 의학 뿐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확산 및 강조되고 있다. Sackett, Straus, Richardson, Rosenberg와 Haynes(2000)는 근거 기반 의학이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활용 가능한 최선의 근거를 임상 경험과 근거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환자 개인의 선호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국내 간호계에서도 근거 기반 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근거 기반 간호의 기본 가정은 과학적 근거는 가장 성공적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 알려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김경희, 2003). 간호가 간호대상자를 전인적인 관점에서 중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근거 기반 간호는 단순히 ‘의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간호 실무에 적용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많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연구 결과를 근거

### 주요어: 임상간호연구, 동향, 연구설계, 간호중재

- 1) 제1저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울산의대 임상간호학 부교수, 3)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4)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6)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 7)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8)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9)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10)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운영팀 수석,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 12) 병원간호사회 사무처장, 13)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본 연구는 2009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진행한 연구로 연구비를 지원받음

투고일: 2010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21일

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분석하여 간호실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로 분야별 간호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이 2000년 이후 활발히 수행되었으며(김증임, 박소미, 박혜숙, 정재원과 안숙희, 2007; 김준길, 2004; 박연환, 이영휘, 김옥수와 조명옥, 2008; 서문자 등, 2001; 송경애 등, 2008; 이광자, 2001; 임난영 등, 2005; 정인숙 등, 2001; 최경숙 등, 2000), ‘임상간호연구’에 발표된 논문은 2006년에 김미영, 유옥수, 이은화와 조의영(2006)이 분석하였다.

‘임상간호연구’는 병원간호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임상에서 수행한 많은 간호 연구를 널리 활용하여 임상 간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임상간호연구’ 학술지는 다른 간호학술지에 비해 임상간호사의 참여가 두드러짐에 따라 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간호 문제가 반영된 논문을 주로 게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거 기반 간호 실무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미영 등(2006)은 ‘임상간호연구’ 학술지 창간호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게재된 10년간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논문의 수, 제1저자의 근무지, 협력연구 형태, 제1저자의 소재지, 연구설계, 연구대상, 이론적 기틀, 용어 정의, 가설검정 유무, 간호중재의 유형과 종속변수의 내용, 논문의 주요 개념 및 제언 유무에 대한 분석을 하여 ‘임상간호연구’ 학술지는 타 학술지에 비해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았고 연구에 대한 이론적 틀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으며, 연구설계 중 질적연구의 편수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1저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질적연구의 수가 작아 질적연구 형태를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간호중재와 종속변수 유형 분석시 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 파악하지 않았거나 분류기준을 이용하지 않고 분석한 간호중재와 종속변수에 대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창간호부터 2008년 8월호까지 13년간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 특성,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간호중재, 종속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임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간호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상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근거 기반 간호 실무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의 창간호에서 2008년까지 ‘임상간

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분석하여 임상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근거 기반 간호실무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임상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 II. 문헌고찰

국내의 임상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임상간호연구’는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간호학술지의 수적 증가, 임상관련 연구의 증가, 병원내 간호부 주관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김미영 등, 2006). 김미원(1999)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임상기관의 연구와 임상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1995년 이후 연도별 연구건수가 급증하였고, 과반수 이상이 기술 및 탐색 목적으로 시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일종합병원의 임상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요 목적이 간호중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인자 등, 2000). 김미영 등(2006)이 임상간호계에서 최초로 발간된 전문학술지인 ‘임상간호연구’에 1995년 창간호부터 2005년 11권 1호까지 10년간 게재된 20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1년으로 접어들면서 논문의 양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임상단독 연구의 형태가 71.4%로 대부분이었지만 대학과의 산학협동 연구의 비율이 24.2%로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연구설계는 인과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실험연구의 비율이 47%이었으며 간호대상자는 대부분 환자(63.2%)였다. 이론적 기틀은 3.4%만이 제시되었으며, 용어의 정의가 되어있는 논문은 93.1%, 가설은 84.0%가 설정되어 있었고, 자료 수집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논문은 59.3%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추론통계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각각 71.7%, 71.2%가 기술되었다. 주요 개념을 국제색인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을 때 180개였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 논문은 95.6%였다.

국내에서 간호연구논문에 대한 분석이 대한간호학회지를 비롯하여 기본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노인간호학회지, 재활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2000년 이후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게재된 총 95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 간호연구의 대상자로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차 감소되고 환자, 환자 가족, 지역사회 건강인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간호의 주요개념인 인간, 간호, 건강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중요 연구분야로 다루어져 왔으나 환경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논문들이 게재되기 시작하였으며 양적연구와 함께 간

호지식체 발전을 위한 중요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최경숙 등, 2000).

1994년 창간호부터 2000년 12월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1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 유형을 보면 비실험연구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고, 자료 수집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정인숙 등, 2001).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기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30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조사연구가 73.2%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실험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설계는 유사실험 연구설계로 59.4%를 나타내었다.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35.4%로 가장 많았고, 자료수집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송경애 등, 2008).

성인간호학회지에 1989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33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 16.1%, 비실험연구 73.6%, 질적연구 10.3%이었고 비실험연구에서는 조사연구(89.3%)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대상자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자료수집방법은 사회심리적 자료수집방법이 5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서문자 등, 2001). 2004년 이후 200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성인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21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88.1%이었고, 질적연구는 5.2% 이었다. 대상자 동의와 관련하여 구두동의를 받았던 연구는 74% 이었고, 서면동의를 받은 연구는 8%이었다. 주요용어는 698개였고, 건강 영역에 포함되는 주요어가 341개(48.9%)로 가장 많았고 인간, 간호, 환경 순이었다(박연환 등, 2008).

노인간호학회지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발표된 88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가 83.0%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연구는 7.9%이었다(김춘길, 2004).

1998년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재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134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67.7%이었고, 자료를 수집할 때 구두동의 75.4%, 서면동의 6.7%, 동의에 대한 기록이 없는 논문이 8.2%이었다. 주연구자는 교수 67.4% 임상간호사 18.7%이었고 심리적 내용을 측정한 논문이 32.8%, 신체적 내용을 측정한 경우는 18.7%로 나타났다(임난영 등, 2005).

정신간호학회지에 창간호부터 2000년까지 8년간 게재된 총 17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비실험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로 가면서 연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실험연구와 타 연구방법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연구대상자는 환자와 일반인이 가장 많았고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사회심리적 측정법이 가장 많았으며 90년대 이후부터 생리적측정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이광자, 2001).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발표된 총 10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논문의 76%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건강관련문제를 연구하였고,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았을 때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행성 연구보다 매우 다양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김중임 등,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동향분석은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분석내용이 다양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대상, 연구설계,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하였고 일부 학회지에서는 주연구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대상자의 동의 여부, 주요용어, 주요개념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간호중재유형과 종속변수 내용은 '임상간호연구'에 게재된 논문(창간호인 1995년에서 2005년)을 대상으로 분류기준을 이용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 분석 대상으로 이용한 논문은 '임상간호연구' 1995년 1권 1호(창간호)부터 2008년 14권 2호까지 13년간 26권에 수록된 모든 논문인 총 3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동향 분석 도구

김미영 등(2006)이 2005년에 실시한 '임상간호연구'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분석기준을 보완하고 본 연구팀에서 문헌고찰과 수차례의 토의를 통하여 분석도구를 작성하였다. 분석도구에 포함된 항목은 연구자의 특성,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간호중재, 종속변수의 7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도구의 각 범주별 세부내용 및 작성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 특성,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연구자의 특성에는 연구자 수,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소속과 직종이 포함되었으며 직종은 대학, 임상, 연구소,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설계의 분류, 자료수집방법은

이은옥 등(2009)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연구대상의 분류는 연구자들의 합의하에 간호사, 환자, 보호자, 병원내 기타직원, 일반성인, 일반노인, 기관 및 물품으로 분류하였다. 윤리적 측면은 기관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심의 통과 여부, IRB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관이나 개인 동의여부가 서술되어 있는지를 포함하였다.

### 2) 간호중재

실험연구에 사용된 간호중재는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7개 영역의 범주는 간호기술 영역과 Abraham, Chalifoux, Evers와 De Geest(1995)에 의해 분류된 건강교육 영역, 간호행정 영역, 심리·사회적지지 영역, 정신교육 영역의 4개 영역, 대체요법 영역 및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간호기술(nursing skills) 영역에는 다양한 간호기술의 방법에 관한 중재,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영역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중재, 간호행정(nursing administration) 영역에는 병원 및 기관의 조직 시스템에 관한 중재, 심리·사회적 지지(psychosocial support) 영역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을 돕는 중재 혹은 음악요법 등이 포함되었다. 정신교육(psycho-education) 영역에는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관한 중재, 대체요법(alternative therapy) 영역에는 지압, 마사지, 쑥뜸 등에 관한 중재, 기타 영역에는 의료 기구 사용 방법에 관한 중재 등이 포함되었다.

### 3) 종속변수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를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7개 영역의 범주는 Sidani와 Braden(1998)에 의해 분류된 임상결과 영역, 기능 영역, 인지 영역, 재정 영역의 4개 영역, 그리고 Yang 등(2009)이 명명한 지식·태도·행동(knowledge, attitude, behavior) 영역, 정서적 상태를 포함하는 정서 영역 및 기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임상결과(clinical end points) 영역에는 신체적 임상증상, 활력 징후, 통증 등의 변수가 포함되며, 기능(functional status) 영역에는 일상생활동작(ADL)/도구적 일상생활동작(IADL) 등을 포함한 변수, 인지(perceptual outcomes) 영역에는 환자만족도, 안위 등에 대한 변수, 재정(financial outcomes) 영역에는

비용-효율성 평가 혹은 원가비교를 위한 변수, 지식·태도·행동 영역에는 대상자의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변수, 정서(emotion) 영역에는 불안 등의 변수, 기타 영역에는 그 외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 4. 자료수집방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 보호심사위원회로부터 연구계획서 심의를 통과한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우선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특성,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수집방법, 윤리적 측면, 간호중재, 종속변수 등 7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별 내용은 분석도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전체 분석대상의 341편 논문을 연구자들이 나누어 분석도구에 맞추어 분류하였고, 분류가 명확치 않거나 분석시 의문사항 등을 연구자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논문별로 엑셀에 입력한 후 SPSS-Win Version 14(Chicago, IL)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동향

### 1) 연구자의 특성

연구자의 수는 2명인 경우가 전체 341편 중 68편(19.9%)으로 가장 많았다. 단독인 경우는 37편으로 10.9%이었고 최대 18명(1편, 0.3%)까지 있었으며, 평균은 4.7명이었다(표 1). 제1저자의 소속은 총 341편 중 273편(80.1%)이 임상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은 66편(19.3%)이었다(표 2). 제1저자의 직종은 간호사가 341편 중 272편(79.7%)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61편(17.9%)이었다(표 3). 교신저자의 소속은 임상이 341편 중 229

〈표 1〉 연구자의 수

(N=341)

연구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계
n	37	68	35	45	41	31	20	25	9	12	8	3	3	2	1	1	341
%	10.9	19.9	10.3	13.2	12.0	9.1	5.9	7.3	2.6	3.5	2.3	0.9	0.9	0.6	0.3	0.3	100.0

편(67.1%)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108편(31.7%)이었다. 교신 저자의 직종도 간호사가 229편(67.1%)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94편(27.5%)이었다. 모든 저자를 합해서 보면 연구자의 소속은 임상이 81.0%이었고, 다음이 대학으로 17.7%였으며, 연구자의 직종은 간호사가 79.4%, 교수가 15.2%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연구자의 소속

소 속	n(%)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합계
임상	273 (80.1)	229 (67.1)	822 (86.3)	1,324 (81.0)
대학	66 (19.3)	108 (31.7)	115 (12.1)	289 (17.7)
연구소	1 ( 0.3)	3 ( 0.9)	15 ( 1.6)	19 ( 1.2)
지역사회	1 ( 0.3)	1 ( 0.3)	0 ( 0.0)	2 ( 0.1)
계	341(100.0)	341(100.0)	952(100.0)	1,634(100.0)

〈표 3〉 연구자의 직종

직 종	n(%)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합계
간호사	272 (79.7)	229 (67.1)	797 (83.7)	1,298 (79.4)
교수	61 (17.9)	94 (27.5)	95 (10.0)	250 (15.2)
연구원	2 ( 0.6)	5 ( 1.5)	36 ( 3.8)	43 ( 2.6)
시간강사	3 ( 0.9)	7 ( 2.1)	11 ( 1.1)	21 ( 1.3)
대학원생	3 ( 0.9)	5 ( 1.5)	10 ( 1.1)	18 ( 1.1)
연구소장	0 ( 0.0)	1 ( 0.3)	0	1 ( 0.1)
물리치료사	0 ( 0.0)	0 ( 0.0)	1 ( 0.1)	1 ( 0.1)
보건교사	0 ( 0.0)	0 ( 0.0)	1 ( 0.1)	1 ( 0.1)
의사	0 ( 0.0)	0 ( 0.0)	1 ( 0.1)	1 ( 0.1)
계	341(100.0)	341(100.0)	952(100.0)	1,634(100.0)

2) 연구설계

연구설계를 보면 양적연구는 341편 중 333편(97.6%), 질적 연구는 7편(2.1%)이었고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한 트라이앵글레이션이 1편(0.3%)이었다. 전체적으로는 341편 중 조

사연구 136편(39.9%), 유사실험연구가 119편(34.9%) 순이었다.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는 333편 중 161편(48.3%), 비실험 연구는 172편(51.7%)으로 비실험연구가 더 많았다. 실험연구 161편 중 유사실험연구가 119편(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 실험연구 172편 중에서 조사연구가 136편(79.1%)으로 가장 많았다(표 4).

〈표 4〉 연구설계

연구구분	n (%)		
	n	%	
실험연구	순수실험연구	3 0.9	
	유사실험연구	119 34.9	
	원시실험연구	39 11.4	
	소계	161 47.2	
양적연구	메타분석연구	0 0.0	
	체계적 문헌고찰연구	0 0.0	
	사례대조군연구	0 0.0	
	코호트연구	0 0.0	
	조사연구	136 39.9	
	비실험연구	문헌고찰	0 0.0
		방법론적연구	26 7.6
		Q방법론적연구	3 0.9
		사례연구	2 0.6
		요인분석연구	2 0.6
시스템다내믹스연구		3 0.9	
소계	172 50.4		
계	333 97.6		
질적연구	근거이론연구	2 0.6	
	현상학적연구	5 1.5	
	해석학적연구	0 0.0	
	문화기술지연구	0 0.0	
역사적연구	0 0.0		
계	7 2.1		
트라이앵글레이션	1 0.3		
총 계	341 100.0		

3) 연구대상

중복을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이 환자인 경우가 총 389편 중 217편(5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간호사 100편 (25.7%) 이었다(표 5).

〈표 5〉 연구대상

연구대상*	n	%
환자	217	55.8
간호사	100	25.7
보호자	45	11.5
병원내 기타 직원	15	3.9
일반성인	4	1.0
물품	4	1.0
일반노인	3	0.8
기관	1	0.3
계	389	100.0

\* 중복 허용

4) 자료수집방법

중복을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료수집방법은 총 451편 중 설문지를 이용한 경우가 208편(46.1%)으로 가장 많았고, 생리적 측정이 70편(15.5%)으로 다음 순이었다. 기타에는 도구개발 연구 6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간호인력산정 3편, 임상 경로(clinical pathway) 개발 연구 1편 등이었다(표 6).

〈표 6〉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	n	%
설문지	208	46.1
면담	46	10.2
의무기록	23	5.1
관찰법	62	13.7
자가보고	15	3.3
생리적측정	70	15.5
텔파이	7	1.6
Q방법론	3	0.7
세균배양	7	1.6
기타	10	2.2
계	451	100.0

\* 중복 허용

5) 윤리적 측면 고려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분석한 결과,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경우가 341편 중 2편(0.6%)이었고, 연구대

상자나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211편(61.7%)으로 가장 많았고, 윤리적 측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120편(35.4%)이었다(표 7).

〈표 7〉 IRB 심의 여부

(N=341)

IRB 심의 여부	n	%
IRB 심의받음	2	0.6
기관 동의 받음	14	4.0
IRB 심의받지 않음	197	57.7
개인의 동의 받음	120	35.4
아무런 언급 없음	120	35.4
연구대상이 인간이 아닌 경우	8	2.3
계	341	100.0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6) 간호중재의 종류

실험연구 중 원시실험연구를 제외하고 순수실험연구, 유사실험연구에서의 간호중재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간호기술 영역에 속하는 중재가 4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강교육 영역, 대체요법 영역, 심리·사회적지지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교육 영역은 1.6%, 기타 영역은 0.8%이었으며 간호행정 영역에 속하는 중재는 하나도 없었다(표 8).

〈표 8〉 간호중재의 종류

중 재	n	%
간호기술 영역	54	44.3
건강교육 영역	28	23.0
간호행정 영역	0	0
심리·사회적 지지 영역	15	12.3
정신교육 영역	2	1.6
대체요법 영역	22	18.0
기타 영역	1	0.8
계	122	100.0

7) 종속변수의 종류

임상결과 영역에 속하는 종속변수가 60.0%(207편)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인지 영역과 지식·태도·행동 영역이 13.9%, 정서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영역은 6.1%를 차지하였고,

재정 영역은 0.6%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능 영역에 속하는 종속변수는 하나도 없었다<표 9>.

<표 9> 종속변수의 종류

종속변수	n	%
임상결과 영역	207	60.0
기능 영역	0	0.0
인지 영역	48	13.9
재정 영역	2	0.6
지식·태도·행동 영역	48	13.9
정서 영역	19	5.5
기타 영역	21	6.1
계	345	100.0

\* 중복허용

## V. 논 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1995년에서 2008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그 동안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수는 2명인 경우가 총 341편 중 68편 (19.9%)으로 가장 많았다. 단독인 경우는 37편으로 10.9%이었으며 최대 18명까지 있었고, 평균은 4.7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인숙 등(2001)이 1994~2000년의 기본간호학회지를 분석했을 때 평균 연구자의 수는 2.2명이었고, 송경애 등(2008)이 2001~2007년의 기본간호학회지를 분석했을 때 2.87명에 비해 본 연구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1저자는 간호사가 80.1%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19.3%이었으며 교신저자는 간호사가 67.1%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31.7%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김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 제1저자는 임상소속이 90.1%, 학교소속이 9.9%인 것에 비해 간호사의 비율이 줄고 교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내 간호부서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연구설계, 방법 및 분석에 경험이 많은 교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교수가 제1저자가 되고, 간호사가 교신저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구설계를 보면 본 연구에서 양적연구는 97.6%, 질적연구는 2.1%, 트라이앵글레이션이 0.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구가 양

적연구로 나타났다. 양적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송경애 등(2008)에서 약 94%, 박연환 등(2008)에서 약 88%, 정인숙 등(2001)에서 약 87%, 김춘길(2004)에서 83%로 특히 본 연구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질적연구의 비율은 김춘길(2004)에서 7.9%, 박연환 등(2008)에서 5.2%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적연구 중 실험연구가 47.2%, 비실험연구가 50.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실험연구는 유사실험연구가, 비실험연구는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 등(2006)에서 실험연구의 비율이 47%인 것과 매우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인숙 등(2001)에서 실험연구가 31.6%를 차지하였고, 송경애 등(2008)에서 실험연구가 23.7%를 차지하였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와 김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 실험연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임상 현장에서는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중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인숙 등(2001), 송경애 등(2008)의 연구에서 실험연구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결과에 비추어 향후 연구에서는 연도별 실험연구 추이를 비교하여 보면 실험연구가 증가되는 경향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비실험연구 중 조사연구가 3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문자 등(2001)에서 조사 연구가 65.8%이고 송경애 등(2008)에서 89.3%라는 결과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는 임상실무에서는 서술연구와 탐색 연구보다는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실험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환자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간주된다.

본 연구결과 실험연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설계는 유사 실험연구로 119편인데 비하여 순수실험연구는 단 3편에 그쳤다. 김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 순수실험연구가 3편으로 보고 되어 2005년 이후 순수실험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서문자 등(2001)에서도 순수실험연구는 단 1편밖에 없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학의 특성상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고 맹검(blinding)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을 답습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근거 기반간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작위배정 임상연구가 중요하므로 간호학 연구에서도 순수실험연구나 무작위배정 임상연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질적연구가 7편(2.1%) 이었고 이 중 근거이론 연구가 0.6%, 현상학적연구가 1.5%로 김미영 등(2006)의 보고 이후 4편이 증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도 1편 있었다. 질적연구의 수가 양적연구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임상간호연구 학회지가 임상에서 제기된 연구문제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므로 실증적인 양적 연구 방법이 주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방법론을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므로 석사학위가 대부분인 임상 연구자들이 질적인 연구를 많이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인간의 정서, 심리, 생리,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질적연구는 연구자의 관점 이외에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간호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일부 주제에 대하여는 임상연구에서도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인간의 건강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임상간호연구 학회지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이 1편의 연구에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질적인 연구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방법은 간호연구 결과의 통합성과 깊이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질적연구방법 전문가와 공동 또는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본 연구결과 중복을 허용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가 55.8%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25.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임상간호연구가 환자의 간호문제해결이 주목적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송경애 등(2008), 서문자 등(2001), 임난영 등(2005)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지만, 학회지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본간호학회지 논문의 35.4%(송경애 등, 2008) 보다는 높은 것으로, 재활간호학회지 논문의 67.7%(임난영 등, 2005)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문의 특성과 연구 대상이 매우 밀접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호사가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간호 문제를 다루는 간호사들의 간호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가 간호사, 보호자, 병원의 기타직원, 지역사회 건강인 등 다양한데, 이는 간호사와 간호학생 뿐만 아니라 환자, 환자 가족, 지역사회 건강인 등으로 연구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최경숙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물품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도 있어 연구대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자료수집방법을 분석한 결과, 설문지를 이용한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김미영 등(2006)의 보고와 거의 동일하였다. 서문자 등(2001)에서 사

회심리적 자료수집방법이 5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는 정인숙 등(2001)과 송경애 등(2008)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수집방법 중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 다음으로 생리적 측정을 이용하였고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자료 수집은 15.5%이었는데, 이는 임난영 등(2005)의 연구에서 신체적 내용을 측정된 경우가 18.7%로 나타났다는 것과 거의 유사하였다. 간호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융화시키는 융합과학으로서 사회학적 접근과 자연과학적 접근을 통해 간호현상의 기전을 설명하고 간호중재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임상간호연구에서는 특히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간호기술 영역에 속하는 중재가 가장 많고 종속변수로 임상적 결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생리적 측정을 이용한 자료수집방법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면담과 관찰법의 비율은 김미영 등(2006)에서 각각 5.5%, 10.9%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2%, 13.7%로 증가한 것은 설문지를 통해 얻기 어려운 자료를 면담과 관찰을 통해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분석한 결과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가 대다수를 나타냈으나, IRB 심의는 받지 않았으나 연구 대상자나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6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 등(2006)의 연구에서 자료수집 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논문이 56.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이 2008년까지이며 김미영 등(2006)의 논문은 2005년까지이었으므로 2005년 이후에 수행한 연구가 연구대상자나 기관의 동의를 얻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윤리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35.4%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윤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고 그 이전에는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기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며 또한 연구자가 연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석 된다. 최근 들어 연구윤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임상연구를 수행할 때 IRB 승인을 의무화 하고 있어 앞으로 임상간호연구시에 IRB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임상간호연구'의 투고 규정에 IRB 통과를 권고하고 점차적으로 IRB 승인을 받은 논문만을 게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중재의 종류는 간호기술 영역에 속하는 중재가 44.3%로 가장 많았고 건강교육 23.0%, 대체요법 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영 등(2006)의 간호처치 28.1%, 교육 23.3%, 대체요법 13.6% 순서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간호기술 영역의 중재가 김미영 등(2006)의

간호처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무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간호기술의 방법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간호기술방법을 시도하고자 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 연구를 수행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임상결과가 6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현장에서 환자들의 신체적 이상증상, 활력증후, 통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임상결과를 사용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임상간호연구의 목적이 환자의 간호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임상간호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타학회지에 비해 임상을 중심으로 한 유사실험연구와 간호중재가 많고 간호중재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임상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실무의 발전은 연구로부터 나온 지식체 특히 실험연구에서 획득된 경험의 지식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신현숙 등, 2010)는 관점에서 볼 때 임상간호연구논문은 간호실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근거 기반 간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타당성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상간호학회지에 보고된 실험 연구를 심층 분석하여 근거 기반간호실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는 앞으로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안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VI. 결론 및 제언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은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유사실험연구가 많고 간호중재는 간호기술, 임상실무에 속하는 중재가 가장 많으며 종속변수는 임상적결과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임상간호연구는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질적연구와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자료수집방법으로 생리적 측정을 활성화해야 하며 최근 들어 연구윤리가 강조 되고 있으므로 IRB 통과를 점차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임상간호연구의 목적이 임상실무현장에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동안 임상간호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질 평가와 근거등급의 평가를 통해 간호중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경희(2003). 근거-중심 간호(Evidence Based Nursing). *대한간호*, 42(6), 54-63.
- 김미영, 유옥수, 이은화, 조의영(2006). '임상간호연구'논문 분석을 통한 임상연구의 동향. 성영희(편.). *2005년도 사 업보고서*(pp. 227-242). 서울: 병원간호사회.
- 김미원(1999). 임상연구 실태조사. *대한간호*, 40(4), 70-76
- 김인자, 박정숙, 박선미, 길윤경, 이정애, 정혜경 등(2000). 일 종합병원 임상간호연구 분석. *임상간호연구자료집*, 228-239.
- 김중임, 박소미, 박혜숙, 정재원, 안숙희(2007). 여성간호학회지의 최근 3년간의 논문분석(2004-2006년). *여성간호학회지*, 13(1), 51-59.
- 김춘길(2004). 국내 노인 간호연구 분석 -최근 5년간 노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노인간호학회지*, 6(1), 81-90.
- 박연환, 이영희, 김옥수, 조명옥(2008). 최근 3년간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내용과 경향 분석(2004-2006년). *성인간호학회지*, 20(1), 176-186.
- 서문자, 김소선, 송미순, 이명선, 오의금, 신경림 등(2001). 성인간호학회지 논문(1989-2000)의 내용과 경향 분석. *성인간호학회지*, 13(4), 571-580.
- 송경애, 김중임, 최동원, 김애경, 정승교, 김경희 등(2008). 기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동향 탐구 -2001년부터 2007년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15(3), 262-273.
- 신현숙, 현명선, 구미옥, 조명옥, 김숙영, 정재심 등(2010). 최근 2년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게재논문 분석 -연구 동향, 실험 중재, 연구의 근거등급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40(1), 139-149.
- 이광자(2001). 정신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0(4), 451-462.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중임, 배정아 등(2009).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임난영, 김정화, 조복희, 소희영, 박송자, 조남옥 등(2005). 재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 -창간호부터 2004년까지-. *재활간호학회지*, 8(2), 119-128.
- 정인숙, 강규숙, 김경희, 김금순, 김원옥, 변영순 등(2001). 기본간호학 연구동향 -기본간호학회지 논문분석을 기반으로-. *기본간호학회지*, 8(2), 132-146.
- 최경숙, 송미순, 황애란, 김경희, 정명실, 신성례 등(2000). 대

- 한간호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국내 간호연구 동향 -창간호에서 1999년도까지-. *대한간호학회지*, 30(5), 1207-1218.
- Abraham, I. L., Chalifoux, Z. L., Evers, G. C. M., & De Geest, S. (1995). Conditions, interventions, and outcomes in nursing researc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American and European/International journals (1981-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32(2), 173-187.
- Hay, J. A., Maldonado, L., Weingarten, S. R., & Ellrodt, A. G. (1997). Prospective evaluation of a clinical guideline recommending hospital length of stay in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hemorrhag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8(24), 2151-2156.
- Sackett, D. L., Straus, S. E., Richardson, W. S., Rosenberg, W., & Haynes, R. B. (2000). *Evidence-based medicine: How to practice and teach EBM* (2nd ed.).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 Sidani, S., & Braden, C. J. (1998). *Evaluating nursing interventions: A theory-driven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Yang, H. L., Lou, M. F., Liu, P. C., Ni, L. F., Chang, H. Y., & Chen, Y. C. (2009). Trend analysis of nursing intervention studies published by Taiwan Nurses Association between 1954 and 2006.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7(2), 102-111.

##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Choe, Myoung Ae<sup>1)</sup> · Jeong, Jae Sim<sup>2)</sup> · Lim, Kyung Choon<sup>3)</sup> · Kim, Joo Hun<sup>4)</sup> · Kim, Keum Soon<sup>1)</sup>  
Kwon, Jeong Soon<sup>5)</sup> · Kim, Sung Jae<sup>6)</sup> · Kim, Kyung Hee<sup>7)</sup> · Kwak, Chan Yeong<sup>8)</sup>  
Park, Kwang Ok<sup>9)</sup> · Lee, Kyoung Eun<sup>10)</sup> · Kim, Eul Soon<sup>11)</sup> · Lee, Kyung-Sook<sup>12)</sup>

-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2)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 3)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 4)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5) Team leader, Nursing Department, Asan Medical Center
- 6)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7)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8)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 9) Director, Asan Academy Institute/Administration, Asan Medical Center
- 10) Master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11) Executive Director, Hospital Nurses Association
- 1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of 341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from 1995 to 2008.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to November, 2009. The tool for analysis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discussions of researchers consisted of 7 categories such as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research designs, subjects, data collection methods, ethical consideration, nursing interventions, and dependent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Results:** The mean number of author per study was 4.7, and clinical nurses were the most frequent as the first author (79.7%) and as a corresponding author (67.1%). Quantitative study was 97.6% and nonexperimental study was 51.7%.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s were quasi-experimental study (73.9%) among experimental studies and survey study (79.1%) among nonexperimental studies. Patients were the most frequent subjects for studies (55.8%). 46.1% of studies gathered data with questionnaire, 57.7% of studies had consent from patients, and 44.3% of studies used nursing skills for nursing interventions, and 60.0% of studies used clinical end points for dependent variables. **Conclusion:** The research trend of clinical nursing studies shows that clinical nurses mostly perform quasi-experimental researches to solve patients' problem and frequently use nursing skills for nursing intervention and explore the effect of nursing interventions on clinical end points.

**Key words:** Clinical nursing research, Trend, Research design, Nursing intervention

Corresponding author: Lee, Kyung-Sook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901, Namwonro, Wonjushi, Gangwondo 220-711, Korea  
Tel: 82-10-9981-2364, E-mail: kslee@gwnu.ac.kr